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65호 【루게 제24678호】 주제 103 (2014)년 9월 22일 (월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인터넷에 게재, 연구토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멸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스위스주제사상연구소가 6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멸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메히고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가 5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를 최근

스위스주제사상연구소가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혁명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지침이다》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선군철에 즈음하여 8월 28일 브라질에서 진행되었다.  
\* \* 토론회에는 브라질주제사상연구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 \* 토론회에서는 먼저 브라질주제사상연구소가 브라질에 온 베스 마르티네스가 로작의 기본내용을 해설하였다.  
\* \* 이어 여러 인사들이 토론

하였다.  
\* \* 토론자들은 선군혁명론, 선군정치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혁명론이며 정치방식이라고 강조하였다.  
\* \*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의 가치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신데 대하여서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령도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해나가고계시는데 대하여 그들은 격찬하였다.  
\* \* 그들은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낼것이라고 확인하였다.  
\* \* 본사기자

## 위대한 어머니를 우러르는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

### 김정숙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명예칭호와 훈장 등을 수여해드리고 그이를 칭송하는 도서, 시작품 창작출판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수형결사 용위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고 온 생애를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강그리 불태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세계적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는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있다.  
\* \* 열렬한 애국충정과 헌없이 고결한 품도, 뜨거운 인성미로 만민을 매혹시킨 백두산녀장군께 지난 10여년간 여러 나라에서 명예칭호와 훈장, 메달, 상과 선물들을 삼가 드리였다.  
\* \* 국제민주여성평화네트워크에서는 녀성활동가의 빛나는 귀감이신 김정숙동지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갈 일념으로 그이를 각각 명예성원, 명예특별회원 등으로 모시였다.  
\* \*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이신 김정숙동지께 배루옹용생태학회에서 명예회원칭호를, 에파도르 인바라주 썬 미갈 데 이바라시에서는 《위대한 스승들》 명예칭호를 드렸다.  
\* \* 프랑스사범대학에서는 태양의 해방이 되어서 한평생 위대한 수령님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시고 그의 안념을 위해 헌신하신 김정숙동지께 금메달과 명예증서를 수여해드리였다.  
\* \* 배루작가, 예술인전국협회에서 드린 《배루작가, 예술인전국협회의 태양》메달과 증서에는 나라의 해방과 건국위업에 기여하시고 주체위업계승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 백두산녀장군에 대한 배루인민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담겨져있다.  
\* \* 로지아국제기념운동《승리기여》조직위원회에서는 《승리기여》사회훈장을, 에리트 문화 및 국제문명대회를

위한 전문동맹에서는 사람이 지구를 떠날때까지의 모습을 형상한 상과 업적증서,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네트워크에서는 네팔국제평화상을 수여해드리는 모임들이 해당 나라 정세, 사회계인사들의 깊은 관심속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 \* 소련공산당 위원장은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90돐기념메달을 수여하는 모임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인류가 낳은 가장 훌륭한분사이라고 격찬하였다.  
\* \* 나이지리아 이바라주 아바시에서 오하주 에그벨루지공공체 대항은 김정숙동지께 명예칭호를 수여해드린것은 시대와 인류에 쌓아올린 녀사의 거대한 업적을 높이 칭송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 어린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서 어 배두의 녀장으로 명성떨치신 녀사는 위대한 김일성주제께 가장 충실한 혁명동지, 전사이시였다.  
\* \* 녀사께서 이룩하신 특출한 공적중의 공적은 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안아올리신것이다.  
\* \* 에로부러 위인의 뒤에는 언제나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고 하였다.  
\* \* 김정숙동지는 진보적인류가 칭송하는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각하의 어머니이시다.  
\* \* 조선의 독립과 새 사회건설에 바치신 로고와 시대의 발전과 인류자주위업에 쌓으신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가장 훌륭한 어머니이신 김정숙동지께 《만민의 위대한 어머니》축하칭호와 우리 시의 기념열의를 수여해드리는 것은 우리 공공체의 커다란 영광이며 자랑이다.

메히고, 에파도르, 베루의 여러 도시들에서는 김정숙동지를 명예시민으로 모시였다.  
\* \* 메히고 부에라라주 장관은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한 투쟁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김정숙동지께 부에라라주 주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담아 삼가 명예시민칭호를 드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 \* 그는 일찌기 녀성의 몸으로 손에 무장을 잡고 조선의 해방과 녀성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용감히 싸우시였으며 해방후 인민들을 새 조국건설에 불려일으킨 김정숙동지의 업적은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 백두의 녀장군이신 김정숙동지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경모심은 도서와 시작품들에도 뜨겁게 여겨졌다.  
\* \* 로씨야작가동맹에서는 도서 《위대한 승리의 가치》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의 공적은 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안아올리신것이다.  
\* \* 에로부러 위인의 뒤에는 언제나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고 하였다.  
\* \* 김정숙동지는 진보적인류가 칭송하는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각하의 어머니이시다.  
\* \* 조선의 독립과 새 사회건설에 바치신 로고와 시대의 발전과 인류자주위업에 쌓으신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가장 훌륭한 어머니이신 김정숙동지께 《만민의 위대한 어머니》축하칭호와 우리 시의 기념열의를 수여해드리는 것은 우리 공공체의 커다란 영광이며 자랑이다.

《김정숙장군 찬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태양을 향하여 날으다》 등의 도서들에도 항일의 날 수형결사용위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녀사의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덕성이 생동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서술되였다.  
\* \* 브라질 10월8일혁명운동 전국비서국의 한 인사는 시 《조선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 경의를》에서 김정숙동지를 김일성주제께 가장 가까운 전수, 민족의 영웅, 동방조선에 찬란한 빛을 뿌리는 빨치산의 녀장군, 위대한 별이시라고 칭송하였다.  
\* \* 에리트주사상연구소 부위원장들은 무장으로 혁명의 사령부를 여세계 보위하시어 우리 혁명력사에 커다란 업적을 쌓으신 녀사를 격찬한 시 《우리의 심장속에 영원히》를 창작하였다.  
\* \* 베루의 한 시인은 시 《어머니의 군복》에서 경위대원의 변함없는 자세로 한평생 사신 김정숙동지의 모습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만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되어있을것이라고 격찬하였다.  
\* \* 서사시 《태양의 해방 김정숙》, 시 《녀장군의 작은 수필》 등 민족의 인사가 창작한 하나하나의 작품마다 다에는 거룩한 혁명영웅의 순간순간을 가장 고귀한 삶으로 빛내신 김정숙동지의 업적과 고매한 품도를 뜨겁게 찬양하였다.  
\* \* 정녕 수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정과 헌신의 정신을 지니시고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에 한평생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생애와 위대한 투쟁업적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속에 영원히 빛나고있다.  
\* \* 본사기자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제14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1일 제14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 \* 그들은 나라의 통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안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참가자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 \* 그들은 훈장보조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조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 \*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 \* [조선중앙통신]

그들은 훈장보조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조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 \*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 \* [조선중앙통신]

##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

청년전위들의 결의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격려사적인 서한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결의모임이 21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되였다.  
\* \* 모임장소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혼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쳐갈 청년전위들의 혁명적열정으로 세계가 끓어번지고있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금수산태양궁전 정면에 모셔져있었다.  
\* \*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모임장소에 세워져있었다.  
\* \*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서한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라는 구호판들과 《청년전위》, 《결사옹위》라고 쓴 글발들이 세워져있었다.  
\*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중앙과 지방의 청년동맹일군들, 모범적인 청년동맹원들, 판계부면 일군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 참가자들, 평양시내 청년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 \* 결의모임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과 합창으로 시작되였다.  
\* \* 모임에서는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 \* 보고자는 온 나라에 조선속도 창조적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서한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결의모임을 가지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 \* 청년동맹의 강화발전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를 마련해



주시고 격려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고 말하였다.  
\* \*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가치높이 청년들을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로 준비시키며 청년동맹을 우리 당의 강위력한 선군청년전위조직으로 꾸려나가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지침이라고 강조하였다.  
\* \* 일찌기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강력한 전위대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워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 \* 어머니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오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애의

희불봉을 청년들에게 안겨주시고 청년동맹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한을 모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빛내주시며 이 땅위에 청년중시의 대화권을 펼쳐주시었다고 말하였다.  
\* \*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으며 주체의 청년운동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 \* 해마다 청년절을 성대히 경축하도록 하시고 머나먼 전선길에서 청년들에게 사랑의 축하문도 보내주시며 우리 청년들을 우리 당이 아끼고 사랑하는 전우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있어 청년동맹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청년동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온 나라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조선청년운동의 개척자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렸으며 주체의 청년운동은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으며 주체의 청년운동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 \* 해마다 청년절을 성대히 경축하도록 하시고 머나먼 전선길에서 청년들에게 사랑의 축하문도 보내주시며 우리 청년들을 우리 당이 아끼고 사랑하는 전우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있어 청년동맹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청년동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고 말하였다.

전위투사로 준비시켜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말하였다.  
\* \* 청년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모든 청년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는 성세, 방패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 \*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정신, 군인본매를 따라배워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선봉투사가 되며 선군시대의 청년들답게 강성국가건설의 돌파구를 앞장서 열어나가는 오늘의 김진, 리수복이 될데 대하여 말하였다.  
\* \*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고 전쟁로병들과 영예로운 군인들을 미공자를 발양하여 군인들결을 철통같이 다져나가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품적

은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반대하여 결렬히 투쟁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 선군청년해방상징운동, 청년들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모든 청년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는 성세, 방패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 \*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고 전쟁로병들과 영예로운 군인들을 미공자를 발양하여 군인들결을 철통같이 다져나가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품적

하며 혁명적이며 자각적인 조직생활기풍을 확립하고 청년전위모범단체경위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 \*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이고 모든 청년동맹초급일군들이 이선작적의 모범으로 대중을 불려일으키고 이끌어주는 기판자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 \* 보고자는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발을 펴며 휘날리며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 \* 모임에서 토론한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로동자 로금철, 만포시 건학협동농장 분조장 리함금,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강위성, 중구역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박성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철의 신념과 의지를 토로하였다.  
\* \* 당의 부름이라면 단숨에 산악도 뚫고 날바다도 메우던 전세대 청년들처럼 진격의 돌파구를 남김없이 열어가며 청춘의 힘과 열정을 다 바쳐 더 높은 전력증산으로 당을 받들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 한몸이 그대로 생명수가 되고 거름이 되어 사회주의협동농장마다에 만풍년의 노래소리 높이 울려나갈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살포해 받들어나가는 참된 애국농민, 농민영웅이 될 결의를 피력하였다.  
\* \* 우주를 정복한 위성과학자들처럼 아심만만한 포부와 열정을 안고 두뇌, 기술력을 완강하게 벌려 과학기술과로 부강조국건설을 추동하는 최첨단과학자의 선구자, 유능한 혁명인재로 준비해나갈 맹세를 다짐하였다.  
\* \*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을 늘품이심장에 새겨안고 모든 청년동맹조직들을 당의 사상과 명도를 맨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선군청년전위대로 튼튼히 꾸려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 \*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 \*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과 합창으로 결의모임은 끝났다.  
\* \* [조선중앙통신]



#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별처럼 빛나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 오늘도 오산덕은 수령결사옹위전에 우리를 부른다

오산덕기슭으로 사랑들의 물결이 끝없이 흐른다.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뜨거운 추억을 안고 항일전의 군복 차림 그대로 서 계시는 어머니의 동상을 우러르는 사람들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인다.

수많은 민족의 딸로 탄생하시어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선 신 그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오로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그이의 생애는 서른두해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길지 않은 인생은 우리 새 세대들에게 혁명가들이 간직하여 오 할 가장 고결한 인생관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세대와 세대를 이어, 년대와 년대를 이어 가르쳐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시다.》

사람들속에서 널리 위하고있는 도서 《김정숙동지전기》편찬에 참가한 어느 한 역사가는 말하였다.

어머니의 한생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의 배파전사였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의 배파전사! 그렇다. 이것이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한생에 대한 역사의 정수이며 여기에 어머니께서 지니고계신 가장 값 높은 인생관의 핵이 있다.

수령결사옹위, 이에 대하여 말할 때면 사람들은 누구나 대사하지거나 무충현성 그리고 홍기화를 비롯한 항일의 격전장들을 먼저 생각한다.

사령부도 향하는 원수의 총구가 백천리 후도 그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된다는 결사의 각오를 지니시고 자신의 한몸이 그대로 원수의 총구를 막아내는 역사의 방벽이 되시어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신 김정숙동지가 아니시었던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제일 앞장서서 받들어 결사옹위하신 수령님의 가장 충직한 혁명전사, 제일기수로서의 김정숙동지의 품모도 어머니께서 지니신 남다른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조국이 해방되었다.

10여년세월 백두광야에서 풍찬로 속하시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신 백두산녀장군의 조국개선을 위한 열마나 손뼉이 기다려왔던가. 백두산의 녀장군의 총애는 눈이 달렸는데 거기에 걸려든 눈들은 절대로 살아들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은 근로자들 -회령혁명사적지에서-

아가지 못했다. 어머니께서는 천기를 내다보신다는 전설을 비롯하여 김정숙동지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며 온 나라 인민들이 환영의 꽃다발을 엮고있었다.

그런데 조국에 첫 자국을 찍으시는 격경의 그 순간 김정숙동지께서는 미중나온 정치공작원에게 하신 첫 물음은 《김일성장군님께서 건강하시니까?》였다.

이렇게 조국으로 돌아오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평양으로 가시는 길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을 받드시고 항일전의 나날처럼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결사옹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었다. 조국에 돌아오신 다음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선봉함에 모인

인민들앞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전진군이 곧 단결하여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시었고 한 농민의 가정을 찾으면서서는 몸소 도리깨질을 하시며 앞으로 땅을 밟아서는 농민들의것으로 된다는것을 해설해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에 떨쳐나설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새길신문사(당시) 기자들을 만나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시면서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에 떨쳐나설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새길신문사(당시) 기자들을 만나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시면서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에 떨쳐나설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회 참가, 함경북도녀맹조직준비위원회 사업과 청년사업 로해, 청년계열소(당시)사업과 부영야공공장(당시), 고무산세멘트공장복구정형 로해...

그때 김정숙동지와 동행했던 항일혁명투사 김옥순동지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번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함경북도의 시골시, 군들을 돌아보면서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김정숙동지의 세밀한 활동계획에 따라 웅근 한달동안에 걸쳐 함경북도에서 군중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었다.》

은 유계회차에서 맞으신 김정숙동지 이시었다.

3천만의 다함없는 환호를 받으시며 꽃수레를 타고오시어 인민들의 성기가 모자라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단원들을 찾으신고 매일과 같이 사람들들과 담화를 나누시며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는 참된 혁명전사의 모습을 조국땅에 아로새기시었다.

어머니께서 해방된 조국땅에서 보내신 4년세월, 그 나날 건국의 초해 길에 남기신 김정숙동지의 발자취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 몸소 찾으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단원들의 자발적 연혁사가 그것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제를 풀기 위한 방도들을 하나하나 의논해주시었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곤 하시었다.

때로는 공장의 로동자나 농촌의 농민이 되기도 하시었고 때로는 이렇게 수많은 단원들을 찾으신고 매일과 같이 사람들들과 담화를 나누시며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는 참된 혁명전사의 모습을 조국땅에 아로새기시었다.

어머니께서 해방된 조국땅에서 보내신 4년세월, 그 나날 건국의 초해 길에 남기신 김정숙동지의 발자취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 몸소 찾으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단원들의 자발적 연혁사가 그것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 백두산녀장군께서 남기신 혁명적구호문헌들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몸소 혁명적구호들을 쓰시어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불려일으키고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어 승리는 반드시 온다는 신심을 안겨주시었다.

《백두산에 장수별 뿔다 백두산정수 삼천리를 비친다》 [주체25(1936)년 9월 백두산발명]

28(1939)년 5월 청봉속명] 《조선민족의 자유와 독립, 해방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자》 [주체28(1939)년 5월 청봉속명]

### 소백수굴에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수령님께 바치신 어머니의 충실성은 절대적인 신념이었고 승고한 도덕이었고 일상적인 생활이였으며 어머니의 한생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으로 일관된 가장 값 높은 한생이였습시다.》

《남촌녀씨 반대 여성해방만세 함월고 천대만는 조선녀인들 모두 일어나 항일전에 참가하자》 [주체25(1936)년 9월 백두산발명]

《어머니께서 몸 품에서 태놓지 않으신 소중한 그 수첩에는 희생된 전우들의 고향과 혈육들의 주소가 적혀져있습시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말따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말따공화국 대통령 마리어 루이스 클레이로 프리카각하 나는 말따독립에 즈음하여 당신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끊임없는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김일성장군님을 사령관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 유격대원들도 빛나는것이였다. 그러기에 우리는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이라고 하는것이였다.

우리는 지난날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 저 하늘의 별처럼 인생을 빛을 뿌리면서 참담게 살아가야 합니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말따공화국 대통령 마리어 루이스 클레이로 프리카각하

나는 말따독립에 즈음하여 당신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끊임없는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저 하늘에 총총하게 뜬 별들은 유난히도 밝은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저 별들이 태양이 없어야 어떻게 저급처럼 밝은 빛을 뿜수 있었습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야 저 별들이 빛을 뿜수 있었이》

위대한 수령님의 충직한 혁명전사로서 삶을 빛낸 인신 수단의 혁명가들의 맨 앞자리에 있는 태양의 해발의 승고한 귀감으로 인생을 수놓아오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하신 그날의 말씀은 오늘날도 나라 천만군민을 부르고있다.

### 수필: 어머니의 수첩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된 조국으로 나오실 때 가지고오신 수습한 배낭속에는 그이께서 소중히 여기시던 수첩이 있었다.

항일혁명투사 김옥순동지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번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함경북도의 시골시, 군들을 돌아보면서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 수필: 어머니의 수첩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된 조국으로 나오실 때 가지고오신 수습한 배낭속에는 그이께서 소중히 여기시던 수첩이 있었다.

항일혁명투사 김옥순동지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번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함경북도의 시골시, 군들을 돌아보면서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 수필: 어머니의 수첩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된 조국으로 나오실 때 가지고오신 수습한 배낭속에는 그이께서 소중히 여기시던 수첩이 있었다.

항일혁명투사 김옥순동지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번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함경북도의 시골시, 군들을 돌아보면서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 수필: 어머니의 수첩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된 조국으로 나오실 때 가지고오신 수습한 배낭속에는 그이께서 소중히 여기시던 수첩이 있었다.

항일혁명투사 김옥순동지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번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함경북도의 시골시, 군들을 돌아보면서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 수필: 어머니의 수첩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된 조국으로 나오실 때 가지고오신 수습한 배낭속에는 그이께서 소중히 여기시던 수첩이 있었다.

항일혁명투사 김옥순동지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번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함경북도의 시골시, 군들을 돌아보면서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아 한다고, 그들을 잊으면 혁명을 잊게 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 수필: 어머니의 수첩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된 조국으로 나오실 때 가지고오신 수습한 배낭속에는 그이께서 소중히 여기시던 수첩이 있었다.

김일성장군님은 너희들의 아버지이시다. 나도 너희들의 어머니가 되려고 한다. 너희들의 아버지, 어머니! 혁명가유자녀들이 만경대의 아들딸, 백두산의 아들딸들로 아버지수령님과 김정숙동지께서 품에 안기시었다.

### 수필: 어머니의 수첩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된 조국으로 나오실 때 가지고오신 수습한 배낭속에는 그이께서 소중히 여기시던 수첩이 있었다.

항일혁명투사 김옥순동지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번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함경북도의 시골시, 군들을 돌아보면서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 수필: 어머니의 수첩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된 조국으로 나오실 때 가지고오신 수습한 배낭속에는 그이께서 소중히 여기시던 수첩이 있었다.

항일혁명투사 김옥순동지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번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함경북도의 시골시, 군들을 돌아보면서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 수필: 어머니의 수첩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된 조국으로 나오실 때 가지고오신 수습한 배낭속에는 그이께서 소중히 여기시던 수첩이 있었다.

항일혁명투사 김옥순동지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번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함경북도의 시골시, 군들을 돌아보면서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 수필: 어머니의 수첩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된 조국으로 나오실 때 가지고오신 수습한 배낭속에는 그이께서 소중히 여기시던 수첩이 있었다.

항일혁명투사 김옥순동지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번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함경북도의 시골시, 군들을 돌아보면서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 절세위인들의 웅대한 구상따라 펼쳐지는 천지개벽의 새 력사

## 세 포 지 구 축 산 기 지 건 설 장 에 서

### 세 세 년 년 길 이 전 하 라, 복 받 은 대 지 여

수수천년 눈과 비, 바람에 시달리며 잡초와 잡관목만이 무성하던 세포등판! 아득히 펼쳐진 세포등판이 로동당시대에 천지개벽을 자랑하고있다.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새 력사를 후세에 길이 전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참된 삶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은 오직 조국과 인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수령에 의해서만 마련되고 꽃피날수 있습니다.》

오늘 세포전역은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노도와 같이 전진하는 조선의 기상, 조선의 속도, 조선의 힘을 대표하는 시대어로 되고있다.

세계는 아직까지 이런 전변, 이런 변혁을 알지도 듣지도 못하였다.

수만정보의 황무지를 단 몇해동안에 기특진 땅으로 전변시키고 황량하던 등판에 풍요한 먹이풀바다가 설배에게 한걸음의 파편 기적이 아니라 말인가. 세포전역의 그 어디를 둘러봐도 좋다. 여기에 와보면 누구나 놀라고 자기의 눈을 의심하게 된다.

과연 이 땅이 사람 못살 버림받던 고장, 일제의 군마들의 발굽에 짓밟히던 그 땅이 옳단 말인가.

황량하던 옛 모습을 밀어내며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는 살림집들과 특색있게 건설되고있는 공공건물들, 집집순우리들, 팔간데일이 펼쳐진 사회주의대초원... 불과 2년이 흘렀다.

주제 101(2012)년 9월 22일, 바로 이날에 위대한 변혁을 부르는 장면

한 회상이 흘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세포등판을 개간하여 풀판을 조성하고 축산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한 편비판을 일으키도록 할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관철을 필생의 위업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최대의 중대사로 여기시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푸시기 위해 이런 결심을 하시여 주신 우리 원수님이시디.

만년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시는 우리의 원수님이시디.

많은 로력과 설비, 자금이 요구되는것으로 하여 그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처럼 아름답고 방대한 공사를 몇해 동안에 해제할것을 결심하시고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전투에 부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에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었다. 천만군인이 산악같이 일떠섰다.

에로부터 바람표, 비표, 눈표가 유명하여 세포라고 불려온다는 땅이었다. 그만 세포땅은 바람으로 유명한 고장이 다. 사나운 겨울에는 눈을 뜯지 않게 붙어있는 세한 눈바람이 한치앞도 가려볼수 없게 하고 봄과 가을에는 또 그대로 흩날리는 일로써 유명하니 그리없는 세포 등판, 이런 등판에 행복의 바람을 불려 오시려는것이 바로 우리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드림없는 의지였다.

행복의 바람!

불러만 봐도 가슴이 찜찜하게 젖어 든다.

돌이켜보면 세포지구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치게 하시려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생의 념원이였다.

분여받은 제방에 행복의 첫 씨앗을 뿌렸던 그해의 가을에는 양목장을 내오도록 하시고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가 내 조국의 하늘가에 울려가던 그해에는 세포지구전변의 설계를 펼쳐주시고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농장을 창설하도록 하여 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오늘도 이곳 사람들이 진실처럼 전해가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생사를 판가리하던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불비속을 헤치며 세포땅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 여기서는 축산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고장 농민들이 잘살수 있는 방도를 환히 가르쳐 주신 어머니수령님, 그때부터 세포땅은 새 생명을 받아안고 인민의 행복이 주렁질 레일을 마중해나갔다.

정녕 세포등판은 복받은 대지이다. 어머니수령님의 숭고한 뜻 어려웠는데 이 세포땅을 인민의 웃음넘치는 사회주의락원으로, 행복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는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으로 불러주시려고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는 또 그 얼마만인가.

강원도를 찾으신 때마침 세포등판에서 소, 양, 염소와 같은 풀먹는 집짐승들을 대대적으로 기르는데 대한 강력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바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그 념원, 세기를 두고 내려오던 인민들의 꿈과 리상이 여기 세포땅에서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포

지구 축산기지건설은 20리 남바다를 막아 일떠세운 서해감문공사에 못지 않은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라고, 우리 시대에 와서 수천년동안 버림받아오던 불모의 땅이 락원의 땅으로 전변되는 천지개벽이 일어나고있다고 하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공사를 제기에 무조건 완공하여야 한다고 힘있게 강조하시였다.

참으로 세포등판에 솟아난 하나의 창조물에도, 눈부리 아득히 펼쳐진 대초원의 한포기 먹이풀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인민사랑이 숨배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의 의지는 그대로 힘의 원천이 되어 두해전 좌풍의 첫 삽을 막은 때로부터 1년 남짓한 기간에 등판 개간과 자연물관리결속, 2000여 정보의 인공물판을 조성하고 2만 2000여마리의 집짐승축복, 300여동의 건축물공사추진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안아왔다.

올해에도 남에남다라 세계를 놀래우는 대비약적혁신이 일어나고있다.

누구나 와보시라. 그러면 조선의 힘이 얼마나 무진막강하며 우리의 꿈과 리상이 얼마나 휘황찬란한것인가를 가슴 뿌듯이 느끼리라. 그리고 가슴을 치며 생각하게 되리라.

이 거창한 창조와 전변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애국헌신과 인민사랑의 력사를!

그렇다.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며 굴지의 대규모축산기지로,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전변되게 될 복받은 대지 세포등판은 흐르는 세월과 함께 세세년년 길이 전해가며 끝없이 노래하리라, 절세의 위인들의 위대한 사랑과 업적을.

### 혁신으로 때미는 힘있는 지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성, 중앙기관들과 각 도, 시, 군들에서 내부에비밀적 작구 탐구동원하여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나서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입니다.》

이무성과 대외문화협력위원회가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있다. 이곳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개척자들과 전진로에 선 건축물공사추진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안아왔다.

올해에도 남에남다라 세계를 놀래우는 대비약적혁신이 일어나고있다.

누구나 와보시라. 그러면 조선의 힘이 얼마나 무진막강하며 우리의 꿈과 리상이 얼마나 휘황찬란한것인가를 가슴 뿌듯이 느끼리라. 그리고 가슴을 치며 생각하게 되리라.

이 거창한 창조와 전변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애국헌신과 인민사랑의 력사를!

그렇다.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며 굴지의 대규모축산기지로,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전변되게 될 복받은 대지 세포등판은 흐르는 세월과 함께 세세년년 길이 전해가며 끝없이 노래하리라, 절세의 위인들의 위대한 사랑과 업적을.

이 현장에 제때에 도착하여 돌격대원들은 시작부터 충천한 기세로 먹이풀판조성을 다그쳐나갔다.

수매량정성과 통양산지도국, 룡해운성을 비롯한 많은 성, 중앙기관의 책임일군들도 먹이풀씨와 각종 거름원천들을 앞질러가며 해결해주었다.

대성지도국의 책임일군들은 중요한 사회주의대초원에 집짐승떼가 구름처럼 호를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100여마리의 양을 품을 들여가며 마련하였다. 그리고 방목공들과 함께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떠나보내어 그 마리수를 부쩍 늘일수 있게 도와주었다.

단위앞에 맡겨진 대상건설과제를 다그쳐 끝내는데 필요한 자재를 앞질러가며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라선시에서는 세멘트와 목재, 철근, 지붕재, 보온재를 비롯하여 량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자재를 짧은 기간에 마련하고 대상건설이 시작되기 전까지 현장에 도착시켰다. 결과 건축물공사를 시작부터 높은 속도로 다그칠수 있도록 하였다.

금강지도국, 국가자연개발성의 책임일군들은 돌격대와의 긴밀한 연계에 공사정형을 수시로 알아보면서 로력과 자재, 물건기재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 해당 단위들이 실적을 부쩍 높일수 있게 도와주었다.

평안남도의 각 시, 군들에서도 많은 영농물자들을 함께 여러가지 자재를 제때에 마련하여 보내줌으로써 맡겨진 건축물물조공사를 다그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황해북도에서는 도와 시, 군당 책임일군들이 직접 많은 량의 목재와 철근을 비롯한 자재들을 가지고 현장을 찾아와 돌격대원들을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평양시와 자강도, 남포시, 외교단사업총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도 자체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 해당 돌격대가 맡겨진 건축물물조공사를 지장 없이 내밀수 있게 하였다.

많은 단위들에서 대상건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마감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책임적으로 보장하였다.

보건성에서는 마련된 자재들을 하나하나 검사한 다음 현장에 실어보내군 하였다. 그리고 많은 로력과 함께 능력이 있는 시공일군을 현장으로 내려보내어 돌격대가 맡은 살림집과 집짐승우리건설을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낼수 있게 하였다.

문화성, 수산성, 국토환경보호성의 책임일군들도 집을 짓자리에 놓고 요구되는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었다.

이런 단위들의 아낌없는 지원사업은 세포등판개척자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로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 정보당 최고 70여의 오리새를 생산

### 대성지도국 돌격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자란 우리 일군들은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높아야 하며 수령을 모시고 당을 받드는 실천활동에서 자기의 애국심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가을 어느날 대성지도국돌격대 일군들은 먹이풀배분제를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품을 들인데 비하여 먹이풀정보당 생산량이 20% 미만이나 하였기에 문이었다. 이 문제를 놓고 땅을 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돌격대장 정광택동무의 생각은 달랐다. 조건이 불리하다고 잠시라도 주춤하던 당정책관철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었던것이다.

—은물이 그대로 거름이 되고 풀씨가 되어서라도 당의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 시대의 개척자가 되자.

이렇게 결심한 그는 현지주민

들과 무를을 마주하였다. 그 과정에 토양상태에 맞게 유기질비료를 잘 리용하여야 지력을 높일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질에효용에는 옥색인 비료를 집짐승배설물과 섞어 버리면 토양구조는 물론 통기조건도 좋아져 먹이풀이 잘 자랄수 있었단것이였다. 필요한 유기질비료만 충분히 확보하면 얼마든지 먹이풀배에서 장훈을 부를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일군들은 돌격대원들과 함께 여러곳을 다니며 버거무지를 찾아내어 1000여을 확보하였다. 지도국의 일군들이 이 사실을 알고 100여의 집짐승배설물을 집짐승수하여 현지에 보내주었다. 신심에 넘친 돌격대원들은 버거와 진거름의 배합비율을 10:1로 정하고 유기질비료생산 다그쳤다. 결과 돌격대에서는 집짐승배설물, 진거름, 해묵은 버거와 구운흙을 비롯한 각종 거름원천으로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정보당 60t을 토전에 내고 씨발일

을 하였던것이다.

지력을 높인 일군들은 포전 씨뿌림량을 정확히 보장하기 위해 먹이풀씨와 색갈이 다른 유기질비료를 따로 장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풀씨를 섞어 정확한 량을 뿌릴수 있게 하였다. 또한 비가 오기 전일까지 씨발임을 외닥다 깔낼수 있게 일정 계획을 세움으로써 싹트는풀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일군들은 포전 담당책임제를 바로 실시하고 먹이풀의 어린 모시기에 김매기근투를 드세게 내밀었다. 그리고 지도국책임일군들과 힘을 합쳐 여러가지 영양원소들을 충분히 보충해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앞질러가며 세우나갔다. 이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먹이풀을 심은 첫해에 정보당 최고 70여의 오리새를 생산하였던것이다. 순수 풀먹는 집짐승 고기 1을 생산하는데 평균 30t의 먹이풀이 요구된다고 볼 때 이것은 정보당 2t의 고기를 생산할수 있는 량이다.

##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위훈을 창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분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포등판개척자들이 황무지에 강성번영의 새봄을 남긴것을 불러 사회주의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차넘치게 할 한결같은 열망과 의지를 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떡이풀재배를 과학적으로 담보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과학적인 토지개량방법들을 적극 도입하여 지력을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그들은 근 300개소의 포전들에 대한 토양분석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오리새를 비롯한 버과먹이풀의 뿌리특성에 맞게 정보당 300t

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인민보안부러단에서는 포전별 먹이풀의 품종배치를 바로하고 효능높은 식물성장속진제를 적극 리용하면서 5회김매기와 진거름, 잎담비료주기를 실속있게 하여 먹이풀생산을 높였다.

대성지도국, 인민봉사총국, 보건성, 수매량정성돌격대를 비롯하여 세포군사단의 많은 단위들이 불철, 가을철 먹이풀씨뿌리기를 적기에 끝내고 비배관리에 품을 넣어 정보당 수입의 각종 먹이풀을 생산하였다.

철도성려단에서는 정보당 먹이풀생산량을 늘이면서 포전 정리에 힘을 넣어 모든 포전을 규격포전으로 만들었다.

경강군사단의 각 도려단들에서도 계획된 면적에 오리새, 자주꽃씨를 비롯한 영양가 높은 먹이풀들을 심어 인공물판을 조성하였다.

1000여동의 대상 건설 힘있게 추진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 곳곳에 1000여동의 살림집,

각종 집짐승 마리수 1.3배로

세포등판에 각종 집짐승마리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9월초현재 각종 집짐승들의 마리수는 지난해보다 1.3배로 늘어났다. 그중에서 양은 2배, 염소는 3.1배, 개사니는 1.93배로 늘어났다.

현장지휘부에서는 농업성과 세포지구축산경리위원회와의 연계에 우량품종의 소, 양, 염소들은 물론 개사니, 오리, 닭을 확보하여 종축, 증금생산체계를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또한 과학적인 사양관리체계와 수의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 집짐승들의 증체를 증진보다 1.2배이상 높일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영양가 높은 먹이풀을 가을하는종축 제때에 가공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결과 먹이풀절일생산계획을 넘쳐 건설위원회돌격대에서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들이 세포축산연구소건설을 힘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며 굴지의 대규모축산기지로,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전변되어가는 세포등판



# 전국 출판 보도부문 기자, 언론인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답사

【삼지연 9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전국출판보도부문 기자, 언론인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17일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앞에서 출발모임을 가진 답사행군대원들은 행군길을 다그쳐 력사의 땅 보천보에 들어섰다.

보천보전투지휘처, 경찰관주재소, 우편국, 면사무소 등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일제에게 깃뚫혀 신음하던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조국해방의 사활을 안겨 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천출위인상에 가슴저울을 금치 못했다.

백두산에서의 행군로정에 그들은 보시리샘물터와 종종등관봉에서 백두의 혁명전적을 우리 혁명의 명맥, 피줄기로 굳건히 이어놓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같이 체득하였다.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이 깃들었으며 항일선열들의 피와 땀, 승고한 투쟁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백두산전적지들을 답사하며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혁명생애로 빛나는 백두의 행군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실 의지를 더욱 가다듬었다.

19일 행군대원들은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우리 땅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역센 뿌리가 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다.

주체조선의 혁명적기상과 슬기를 자랑하며 거언히 솟아있는 백두산정

에서 행군대원들은 항일의 출판일군들처럼 들끓는 현실에 들어가 화선위계집필활동을 활발히 벌이며 김정일시대 출판보도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나갈 일념으로 가슴 불태웠다.

답사행군대원들은 성스러운 태양의 성지 백두산일영고향집을 찾았다.

그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로 드렸다.

고향집을 찾은 행군대원들은 최고밀림의 소박한 커피집에서 빨개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영인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사를 가슴뜨겁게 되새기었다.

행군대원들은 선군조선의 천만리길을 담보해준 력사의 이 집이 우리 조국에는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영원히 승리하며 끝없이 강성번영할 것임을 확신하며 사령부기를 집과 대원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사용하신 박우물과 손수 쓰신 혁명적기로 문헌들을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았다.

청봉속영지, 건창속영지, 배개복속영지,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무포속영지를 비롯한 백두의 전적지들을 답사하면서 그들은 항일대전의 나날 투사들이 지녔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백전백승의 투쟁정신을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백두산에서의 행군길을 혁명전통학습의 중요한 계기로 삼고 행군대원들은 항일빨개산참가자들의 회상기발표모임과 시상송, 답사소감발표모임, 혁명전통교양제의 명작발표모임, 종자도론회 등 여러가지 정치문화사업과 창작활동들을 활발히 벌여왔으며 야외에서 숙영도 하였다.

21일 삼지연혁명전적지에 도착한 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꽃다발, 꽃송이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로 드렸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행군대원들의 결의모임이 삼지연대기념비앞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서 행군대원들은 자기들을 백두산전적지로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혁명의 불태로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굳은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전국출판보도부문 기자, 언론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은 최후승리의 진격로를 앞장서 열어나가는 항일유격대나팔수,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진군나팔수가 되어 사상적인 포성을 높이 울려나갈 기자, 언론인들의 혁명적선결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인민들의 요구와 리의를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오직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여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이아기는 4년전 1월초에 있었던 일로부터 시작된다. 구명관산기지를 건설하는 당위원회 부비서 홍희민동무의 계기는 단천 일군들의 열렬한 찬동을 받았다. 지체없이 건설을 시작하기로 당위원회에서는 완전한 견해일치를 보았다.

이러한 결심의 기초에는 종업원들에 대한 이곳 당일군들의 투철한 복무관점이 놓여있었다. 여러 직장 로동자들을 만나 알아보니 생활상 제일 걸린것은 빨간색이었다.

(종업원들의 빨간색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어머니 당일군의 구실을 한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부비서의 눈길이 그즈음 한곳에 쏠리기 시작한 버럭판터미에로 쏠렸다. 공장에 석탄가스화에 의한 경소마그네사산공정이 새로 꾸러지면서 매일 수십 t의 연재와 버럭판이 나왔다. 쌓이는 버럭판터미를 보면서 보물터미로 전환시킬 공리를 거듭해온 끝에 결심을 내린 것이다.

인민에 대한 투철한 복무관점은 과학적인 타산을 앞세우게

# 투철한 복무관점이 안아온 열매

단천 마그네사공장 당위원회 사업에서 술자들을 감동시켰다. 공사는 45일만에 완전히 끝났다. 자기 공장에서 생산한 구명관용공급받는 종업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구명관공급소앞에 큼직하게 써 붙인 이 구호를 공장당위원회일군들은 단순한 구호로 대하지 않았다. 만족을 모르는 헌신, 도중유식을 모르고 뛰고 또 뛰는 완강한 실천으로 이 구호의 참의미를 뼈에 새기었다.

어느날 점심때 구명관용공급받으며 주고하는 녀성종업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당일군의 가슴은 자책으로 죄어들었다. 발열량이 그다지 높지 못해 낮에 탄을 갈지 못하면 저녁에는 불이 죽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었다.

여러가지로 시험해본 끝에 연재와 버럭판의 배합비율을 확정했고 또 발열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일부 세운것으로 만족하였던 자신들을 질책한 그는 즉시 공업시험소 연구사와 구명관공급소 소장을 문신으로 만나보았다. 노력한 보람은 컸다. 초무연탄활성첨가제를 리용하여 구명관의 연소효율을 높임으로써 종업원들의 호평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만족이 있을수 없다.

빨간색에 대한 종업원들의 수요가 앞으로 더욱 높아질것을 미리 내다본 당위원회일군들은 또 다시 일만큼 벌여주었다. 기술력량을 발동하는 한번에 구명관

을 8개씩 적어내는 유압식형기틀 새로 제작하도록 함으로써 생산능력을 높이고 종업원들에게 매일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게 하였다. 보통분통을 만들어 집집에 공급해줌으로써 종업원들의 생활상편의를 더욱 원만히 보장하면서 소리의 원칙을 지킬수 있게 하였다.

오늘 공장종업원들이 《우리 가정수첩》이라 정답아 부르는 구명관공급카드도 당일군들의 투철한 복무관점이 비껴났다.

연제인가 공급소에서 한 일군의 가정에 조금 많은 량의 구명관을 공급한 사실이 있었다. 이것이 비상사건화되어 공급해준 당사자는 물론 공급받은 일군이 더 진땀을 흘렸다.

이를 계기로 일군이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총복이지 결코 특수한 존재가 아니라는것을 모두에게 같이 인식시킬 당일군들은 종업원별구명관공급카드를 만들어 공급소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일군들이나 로동자들이나 똑같은 공급기준에 따라 매달 규정된 량을 공급받도록 하였다.

종업원들의 빨간색해결에서 이룩한 이들의 경험은 단천지구광업총국에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 일반화되었다.

당일군들의 복무관점이 투철하면 어느 단천나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할 좋은 열매를 안아올수 있다.

이것을 공장당위원회사업은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기술력량을 발동하는 한번에 구명관

단천 마그네사공장 당위원회 사업에서 술자들을 감동시켰다. 공사는 45일만에 완전히 끝났다. 자기 공장에서 생산한 구명관용공급받는 종업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구명관공급소앞에 큼직하게 써 붙인 이 구호를 공장당위원회일군들은 단순한 구호로 대하지 않았다. 만족을 모르는 헌신, 도중유식을 모르고 뛰고 또 뛰는 완강한 실천으로 이 구호의 참의미를 뼈에 새기었다.

어느날 점심때 구명관용공급받으며 주고하는 녀성종업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당일군의 가슴은 자책으로 죄어들었다. 발열량이 그다지 높지 못해 낮에 탄을 갈지 못하면 저녁에는 불이 죽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었다.

여러가지로 시험해본 끝에 연재와 버럭판의 배합비율을 확정했고 또 발열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일부 세운것으로 만족하였던 자신들을 질책한 그는 즉시 공업시험소 연구사와 구명관공급소 소장을 문신으로 만나보았다. 노력한 보람은 컸다. 초무연탄활성첨가제를 리용하여 구명관의 연소효율을 높임으로써 종업원들의 호평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만족이 있을수 없다.

빨간색에 대한 종업원들의 수요가 앞으로 더욱 높아질것을 미리 내다본 당위원회일군들은 또 다시 일만큼 벌여주었다. 기술력량을 발동하는 한번에 구명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제10차 평양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참가할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21일 제10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할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통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세계자유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들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들의 땀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우 리 선 동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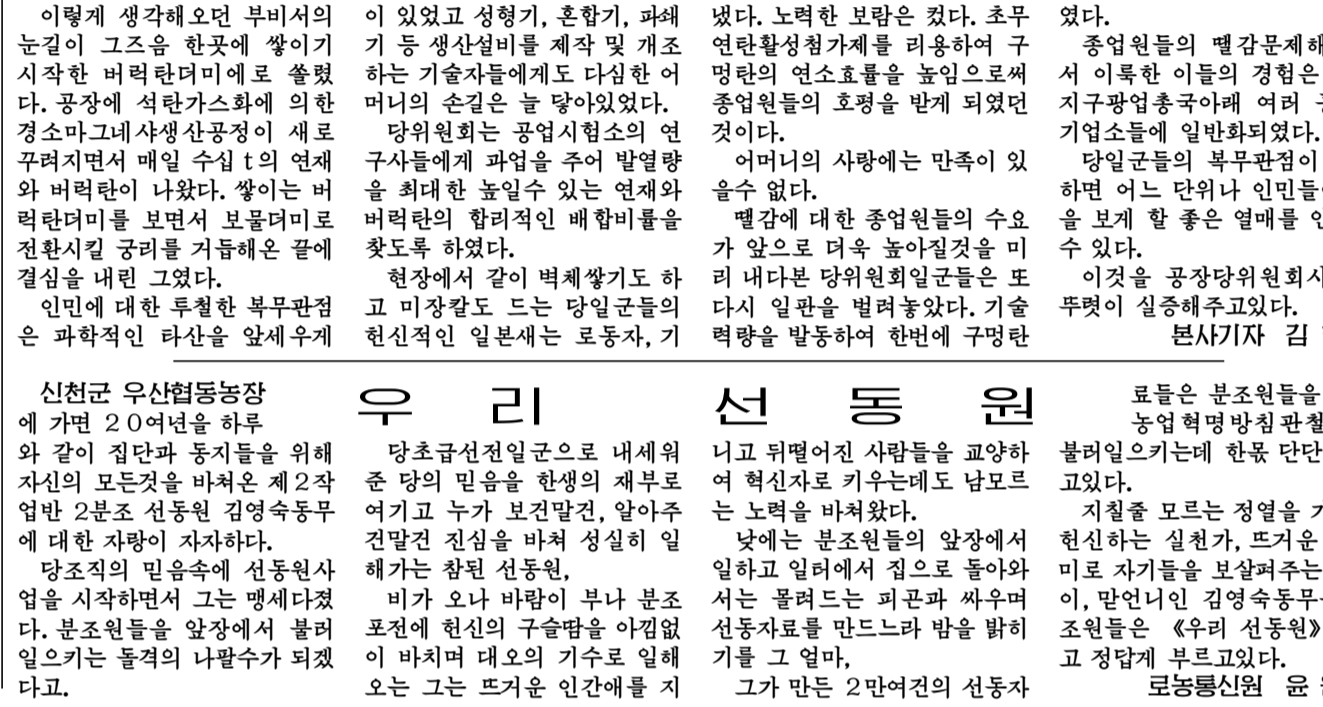
당초급선진일군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한생의 재부여기고 누가 보지말진, 알아주진말진 진심을 바쳐 성실히 일 해가는 함철 선동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분조로전에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대오의 기수로 일해 오 그는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고 뒤뚱이던 사람들을 교양하여 혁신자로 키우는데도 남모르는 노력을 바쳐왔다.

낮에는 분조원들의 앞장에서 일하고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볼터지는 피곤과 싸우며 선동자료를 만드느라 밤을 밝히기를 그 열매.

그가 만든 2만여건의 선동자료를들은 분조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전관철에 불려일으키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지칠줄 모르는 정열을 가지고 헌신하는 실철가, 뜨거운 인정미로 자기들을 보살피주는 만수, 이 만수인 김일성동무를 분조원들은 《우리 선동원》이라고 정답아 부르셨다. 【조선중앙통신】



#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성장

대성구역 통북동 래명희녀성의 가정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자녀들을 미래의 역군으로 잘 키우려면 부모들이 자녀교양을 의도적으로 짜고들어야 합니다.》

대성구역 금성거리초급중학교 1학년에서 공부하는 김철일은 온 아바트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년이다.

인사성이 밝아서만이나, 소학교 1학년생이 되도록 그는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 늘 어머니의 등에 업혀 살아왔다. 그러했던 그가 지금은 학교가 자랑하는 소년단원이 되었다. 아마도 여기에는 부모의 그 어떤 남다른 관심과 훌륭한 교양이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안받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고 우리는 얼마전 칠일이의 어머니 태명희녀성과 마주앉았다.

뜻밖에도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다. «어째때도 우리 철일이가 다시 태어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군인가정의 딸아들로 태어난 철일이가 3살 나던 해에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태명희녀성은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어린것

# 우리 나라 김은국선수 영예의 금메달 쟁취, 연속 새 기록 수립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남자력기경기에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남자력기 62kg급경기에 출전한 우리 나라의 인민체육인 김은국선수가 21일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여 선군조선의 영예를 또다시 떨쳤다.

끝이올리기 첫번째들기에서 2010년에 진행된 제16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세운 기록인 147kg을 가볍게 뛰어넘어 다른 선수들보다 2kg 더 많은 무게를 든 김은국선수는 새로운 기록경신에 나섰다.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의 기대와 당부름 안고 경기장에 나선 김은국선수는 두번째, 세번째들기에서 152kg, 154kg을 단번에 들어올려 아시아경기대회 기록과 아시아기록, 세계기록을 갱신하였다.

김은국선수의 놀라운 경기성과는 수많은 력기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관중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주체적인 경기전법과 기술을 편마해온 김은국선수는 신심에 넘쳐 추켜올리기경기에 나섰다.

첫번째들기에서 170kg을 자신만만하게 성공시킨 그는 174kg, 178kg을 연속 들어올림으로써 2012년 런던올림픽경기대회에서 세운 기록인 종합 327kg을 328kg, 332kg으로 두차례나 갱신하였다.

위대한 선군평정의 슬하에서 자라난 김은국선수는 이번 경기대회에서 세계를 경탄시키는 기록을 세움으로써 선군조선 체육인의 훌륭한 모습과 세계적 력기강자로서의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성장

대성구역 통북동 래명희녀성의 가정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자녀들을 미래의 역군으로 잘 키우려면 부모들이 자녀교양을 의도적으로 짜고들어야 합니다.》

대성구역 금성거리초급중학교 1학년에서 공부하는 김철일은 온 아바트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년이다.

인사성이 밝아서만이나, 소학교 1학년생이 되도록 그는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 늘 어머니의 등에 업혀 살아왔다. 그러했던 그가 지금은 학교가 자랑하는 소년단원이 되었다. 아마도 여기에는 부모의 그 어떤 남다른 관심과 훌륭한 교양이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안받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고 우리는 얼마전 칠일이의 어머니 태명희녀성과 마주앉았다.

뜻밖에도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다. «어째때도 우리 철일이가 다시 태어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군인가정의 딸아들로 태어난 철일이가 3살 나던 해에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태명희녀성은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어린것

# 애국의 마음은 언제나 푸르라

약산미나리를 널리 퍼치는데 이바지한 조용선동무에 대한 이야기

성분도 많이 사람들의 건강증진과 병치료를 도와준다.

약산미나리는 곡을 삶거나 볶아서 먹어도 맛있고 빵, 김치, 무침을 만들어도 맛있다. 또한 생것을 고추장이나 양념장에 찍어먹을수도 있으며 여러가지 담배들과 섞어 요리를 만들며 먹어도 맛이 좋다.

약산미나리는 항암작용, 항염증작용, 리노작용, 진통, 진정, 진정작용, 소화를 돕는 작용 등이 강하며 부부를 부드럽게 하고 항산화능력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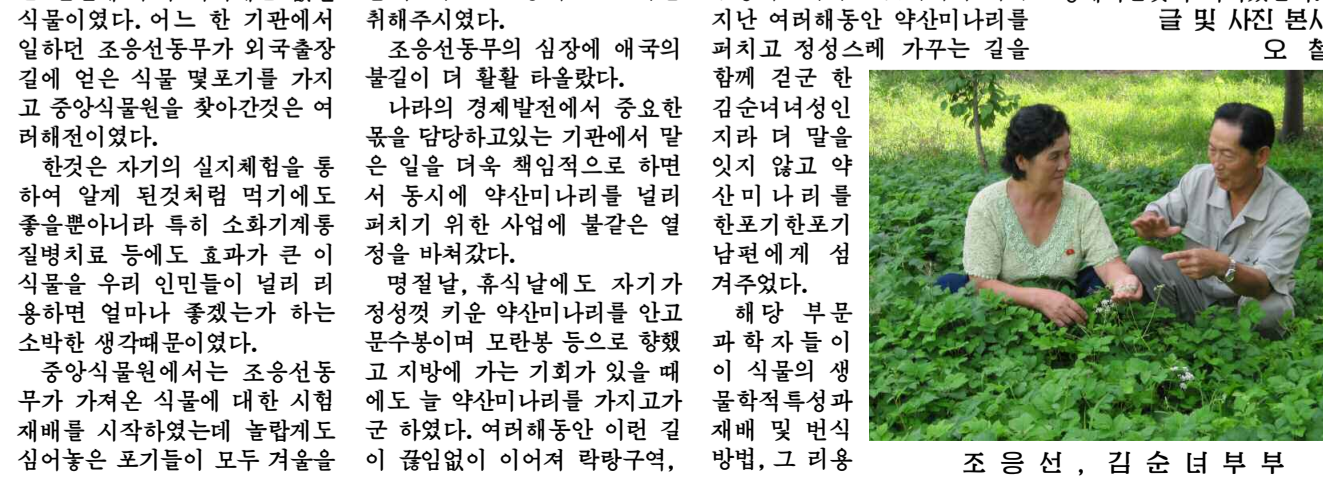
신선한 일을 상재나 판매업무에 붙이기도 한다.

약산미나리는 판상용이나 지피식품로도 리용할수 있다고 한다.

약산미나리는 유럽과 아시아의 일부 지역 등에 분포되어있는 반면에 우리 나라에는 없던 식품이었다. 어느 한 기관에서 일하던 조용선동무가 외국출장길에 얻은 식물 몇포기를 가지고 중앙식물원을 찾아간것은 여러해전이었다.

한것은 자기의 실지체함을 통하여 알게 된것처럼 먹기에도 좋을뿐 아니라 특히 소화기계통 질환치료 등에도 효과가 큰 이 식품을 우리 인민들이 널리 리용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소박한 생각때문이었다.

중앙식물원에서는 조용선동무가 가져온 식물에 대한 시험체배를 시작하였는데 놀랍게도 심어놓은 포기들이 모두 겨울을



온실삼새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본사기자 립 학 력 적

조용선, 김순녀 부부



# 겨레의 가슴속에 래양의 전사로 영생하시는 어머님

태양의 영원한 해방이 되시어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어머니는 너무도 일찍이 우리의 곁을 떠나시었으나 시대와 력사,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더불어 해내외의 온 겨레의 가슴속에 영생하고 계신다.

《김정숙녀사는 오로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 김일성장군님의 위업에 한생을 바치신 애국자의 귀감이며 민족의 위대한 어머니이다.》

《녀사의 애국, 애족, 애민의 위대한 생애야말로 참된 삶의 자취이다.》

《김정숙녀사는 인류사에 이름을 남긴 모든 여성들을 다 합쳐도 따를수 없는 가장 위대한 어머니이다.》

...

남조선인민들의 열렬하고도 뜨거운 이 칭송의 목소리들에 배두의 내장군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생애와 업적을 가슴속깊이 새기고 사는 남녘민심이 그대로 이어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시어 20세기를 빛내이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추제위업계승의 찬란한 태양으로 받아들여주시어 21세기의 밝은 미래를 열어놓으신 김정숙동지, 참으로 우리 민족은 김정숙어머님을 모시였기에 위인의 시대, 승리의 세기를 맞이할수 있었고 대를 이어 수령복, 장관복을 누리는 긍지높은 인민으로 온 세상에

에 자랑될지 못했다. 하기에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남녘겨레의 그리움이 그토록 뜨겁고 그녀의 영생을 바라는 마음들이 그토록 절절했는지 모르나, 남조선의 한 정치학교수는 《소녀시절에 나라찾는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 나서신 김정숙녀사께서는 항일의 혈전 만리 불비속을 헤치시며 민족의 운명이고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시니 특출한 공적을 세우셨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항일전전의 나날 사명부를 결사코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언제나 계시었고 김일성장군님의 신변에 위협이 닥칠때는 한몸이 그대로 성체가 되고 방패가 되어 오위하시었다. 녀사의 불보다 뜨겁고 수성보다 맑은 그 충실성은 생애의 전기가 어느 하루, 어느 회순간도 변함이 없으셨다.》

《김정숙녀사의 공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주체위업, 태양의 위업의 대를 굳건히 이어 오셨으신것이다. 녀사께서는 실천공이 힘쓰는 백두판야에서 태양우리의 총성을 울리시고 포연스민 군복자락에 미래의 장군을 인양하시었다.》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한 지

식인은 김정숙녀사는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부락을 위해 헌신하시였을뿐 아니라 이남의 통일 애국투사들도 뜨겁게 보살펴주시 한없이 자애로운분이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남조선의 한 교수는 조국통일 위업에 커다란 공적을 쌓으신 김정숙어머님을 높이 칭송하여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숙녀사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무조건 수행해야 할 민족적 사상의 과제였다. 하기에 녀사의 사색과 활동은 김일성장군님의 통일방략실현에 이어졌고 이남인민들에 대한 애정으로 차있었다. 이 보살피심속에 이북의 각계 민중은 물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이 다른 이남의 각계 인사들도 인생의 바른길을 찾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섰다. 남북련성회의때 북에 가서 김일성장군님을 뵈고 돌아온 배병 김구선생이 녀사에게서 이어 주신 옷을 친지들에게 자랑하며 기뻐하시었다. 녀사께서 보내주신 친서에 접한 서술의 한 녀성운 동자가 눈물을 흘리며 통일운동에 더욱 분발해나선것은 녀사의 무한한 은정에 탄복하시였을것이다. 친정 김정숙녀사는 통일성업에 한몸바치신 민족의 위대한 어머니이다.》

남녘인민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이렇듯 뜨거운 경모의 정이 분출하고있는 속에 통일운동단위에서 활동해나선것은 녀사의 업적을 보여주는 편지들 그리고 《백두산대장수의 친위병》, 《술부리는 총》을 비롯한 혁명

전설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각계층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백두산대장군께서 올리신 삼일포의 총성이 한나산에도 울려온다고 격조높이 노래한 시 《삼일포에 울린 총성》과 같은 문학작품들이 수많은 창작자로부터 남조선 각지의 거리들에 《민족이 낳은 항일의 내장군 김정숙녀사》 등의 글이 쓰여진 인쇄물들이 뿌려져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런가하면 독자의 한 출판사에서 김정숙어머님의 혁명업적을 감경깊게 보여 주는 《민족의 영원한 어머니》라는 제목의 책이 발행되었다.

러시아공산당회는 《민족이 낳은 내걸》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한평생 조국의 해방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생애에 대하여 상세히 쓰여져있다.

이 소책자를 읽은 한녀성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정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특히 <위대한 태양을 받들어온 녀사>라는 제목의 제목을 읽으면서 너무도 감동되어 눈물을 흘렸다. 녀사께서 실천공 힘쓰는 백두판야에서 조국의 미래를 인양하시었다. 오늘 우리 민족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관복을 누리고있는것이 아닌, 남다른 행운을 누리게 해주신 녀사에게 감사의 끈결을 드리우고싶은 심정이다.》

오늘 남녘겨레의 가슴가슴은 한평생 조국과 혁명, 겨레를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도 길이 빛내리라는 굳센 마음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고있다.

서울의 한 재야인사는 김정숙어머님의 업적을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확신을 표명하였다.

《김정숙녀사는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빛나는 태양의 전사로 영생하신다.》, 《녀사의 업적은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남녘의 도처에서 이런 확신에 넘친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외국여행길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영웅을 수놓은 토틀화를 본 한 대학교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은 녀사의 영상을 우리르니 실로 가슴뜨거워움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하신 나라의 해방과 독립, 민족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민족의 영웅, 민족의 총신이었다. 제군들은 민족을 무뎠던지 않게 살려면 녀사께서 지니시었던 혁명정신을 본받아 조국통일성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백두의 내장군 김정숙동지를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남녘겨레의 신념과 의지는 변함이 없다. 김정숙어머님의 빛나는 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온 겨레의 가슴속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김현철

# 민족단합의 숭고한 뜻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민족의 단합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었다.

주제 37(1948)년 어느날이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가까이 모시고 일하고있는 한 녀성을 만나주시었다.

어머님께서는 그에게 김일성장군님께서 남조선의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에게 남북련성회의초청장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다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오게 된다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 내 놓으신 남북련성회의소집 제안이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적극적인 찬동을 받고있는데 대하여 알려주시었다. 그러시면서 김일성장군님께서께서는 어제날에는 민족을 배반하였지만 오늘은 그 잘못을 뒤우치고 우리와 손을 잡고 나라의 통일을 위해 함께 싸워나가기를 원한다면 그 누구와도 합작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고 하시면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온 민족이

굳게 단합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온 민족이 단합해서 투쟁하면 반통일세력의 《단독정부》조작책동도 파란을 면치 못하고 미제도 배겨내지 못할것이라고 하시며 확신에 넘치신 어조로 말씀하시는 김정숙어머님을 우러르면서 그 녀성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과거보다 민족적향미를 더 거둬들이는 위대한 수령님의 넓으신 포용력과 김정숙어머님의 크나큰 도량에 머리가 숙이는것을 이 절수 없었다.

남조선로동자들도 8.15해방을 맞이하였지만 미제의 강압에 여전히 불행한 처지에서 헤매이고있으니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가. 그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갖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며 살아온 한 인민에게 그 신분을 주시면서 오늘날에 중요한 기사가 될것인데 읽어보라고 말씀하시었다. 신문을 읽고난 인민들이 또다시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는것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시었다.

주제 35(1946)년 6월 어느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제1년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나도 야기처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신문을 보시면서 오늘날에 중요한 기사가 될것인데 읽어보라고 말씀하시었다. 신문을 보시면서 남조선에 대한 애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고, 남조선에 대한 애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고, 남조선에 대한 애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에서 싸울 때 3천만 인민을 다 해방하고 그리도 많은 피를 흘렸는데 아직도 나라의 월남에서 인민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히고있으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그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이어 어머님께서는 조국강토에서 미제침략군을 내쫓고 남조선인민들에게도 하루빨리 민주주의적책임을 차게 지도해 주라고 하시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힘껏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이처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신문을 보시면서 남조선에 대한 애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고, 남조선에 대한 애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본사기자

##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광부 오브르니크시와 연해변방이르프시에서 4일과 7일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개막되었다.

전람회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영정 및 태양상이 모셔져있다.

전람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숙어머님의 단국영적과 선군영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다.

로씨야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숙어머님의 단국영적과 선군영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다.

로씨야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숙어머님의 단국영적과 선군영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다.

## 조선은 계속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숙어머님의 단국영적과 선군영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숙어머님의 단국영적과 선군영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숙어머님의 단국영적과 선군영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다.

##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로씨야와 에로피아가 17일 정치, 경제, 군사 등 분야에서 두 나라사이의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보다 앞서 16일 로씨야와 짐바브웨는 무역, 경제, 투자분야에서 협조를 발전시키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들은 최근 로씨야와 무상의 아프리카사회방문과정에 이룩되었다.

고속도로건설 계획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고속도로건설을 계획하고있다.

17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새로 건설될 고속도로는 수마트라섬의 주요도시들을 통과하면서 섬의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게 된다. 고속도로의 총연장길이는 2700km에 달할것이라고 한다.

정부에서 이 사업에 많은 자금을 들이기로 하였다.

경제장성 스페인에서 올해 2.4분기 경제가 7.8% 성장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 늘어났다고 된다. 16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화력발전소 건설 마르코에서 최근 새로운 화력발전소건설이 시작되었다.

씨피에서 위치한 새발전소의 발전능력은 138만 6000kW에 달하게 된다.

2018년에 완공될것으로 예정되는 이 발전소는 나라의 전력수요의 약 4분의 1을 보충하게 될것이라 한다. 18일 이 나라 통신이 이에 대해 밝혔다.

## 여러 나라에서 자연교해

슬로베니아의 동부와 중부 지역에서 최근 며칠째 계속된 무더기비로 큰물피해를 입었다. 13일현재 1명이 사망하고 행방불명자가 발생하였으며 수백명의 건물이 물에 잠겼다.

피해지역들에서 구급사업이 진행되고있다.

필리핀의 북부지역에서 최근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

수도물 비롯한 5개 지역에서 15일현재 3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았으며 비행기운행이 취소되어 수백명의 여행객들이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다.

피해를 가시기 위한 긴급조치가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부당한 군사적압력, 응당한 강경대응

최근 우크라이나의 정부과 민병대사이의 평화협정이 조인되었다.

협정조인후 쌍방은 즉시 휴전상태에 들어갔다.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에서 전투행동이 중지되고 정부군과 민병대사이의 포로교환이 진행되고있다. 이로써 일명 《공민전쟁》으로 불리우며 우크라이나를 휩쓸던 류렌우파가 일당타자를 내리게 되었다.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손실, 불행하고 고통만을 가져다준 내전이 일시나마 중지된것은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사태가 해결될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데 대해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이 지역에 공고한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바라고있다.

그러나 민심의 요구를 외면하고 첫걸음을 땀 우크라이나에 평화과정에 찬물을 끼얹는 불합리한 선택이 있다. 두말할것 없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다. 분쟁세력들사이에서 핵기를 발고 그 틈을 이용하여 제재를 박고있는것은 미국의 파편적인 수법이다. 이번 역시 폐회가 아니라.

미국은 우크라이나위기를 잠재적적으로 로씨야를 견제할 목적으로 고립정책을 펼치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이를 위해 미국은 우크라이나내정세 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로어를

## 이슬란드에서 화산분출

수를 높이는것은 물론 정치군사적으로 예민한 우크라이나지역에 대치하여 나토군사연습을 벌이고있는 사실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나토성원국도 아닌 우크라이나에서 현이 벌어지는 미군주도의 합동군사연습을 놓고 분석가들은 이 나라를 기어 나토에 가입시켜 강력한 반로씨야군사기지가 만들어지는 서방의 속심의 발로이라고 평하였다.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이 로씨야에 있어서 베를린정책이후 가장 큰 위협으로 평가되는것이 로씨야의 견해이다.

로씨야전략연구소 소장이 나토의 조치는 로씨야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키고 나토의 자제력을 시험하는 처사라고 강조한것은 우연치않다.

로씨야대통령도 어느 한 가지 자회전에서 《우리의 서방동맹들은 사실상 평화과정을 파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있다. 나는 누구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우크라이나를 국제관계들 후속을 강경지세를 보이는 로씨야사이의 무장충돌가능성이 더욱 현실화되고있다고 분석가들은 예측하고있다. 이것이 그대로 우크라이나의 평화과정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것은 변하다.

벌써부터 우크라이나에서 평화과정에 배치되는 군사적도발이 일어나고있는것이 심상치 않다.

본사기자 전영희